

## 경기 일부 지역 초등학생과 어머니의 프리미엄 간식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실태

양혜영<sup>1</sup>, 이효숙<sup>2</sup>, 정자용<sup>2</sup>

<sup>1</sup>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sup>2</sup>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 Perceptions and Use of Premium Snacks and Associated Factors in School Aged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Kyung-Ki Area

Hye-Young Yang<sup>1</sup>, Hyo-Suk Lee<sup>2</sup>, Jayong Chung<sup>2</sup>

<sup>1</sup>Nutritio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s and use of premium snacks (PS) in school aged children.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their mothers attitude toward the PS use on the children's PS eating behavior was examined.

**Methods:** 337 boys and 292 girls and their mothers (n=535)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two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Kyung-ki area. Information on general characteristics, the frequencies of general snack eating and associated factors, and the frequencies of PS eating and associated factors were obtained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Results:** The mean frequency of PS eating were 1.12 times/wk in boys and 0.98 times/wk in girls. The PS eating frequenc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requency of eating general snacks in boys and the money spent on purchasing general snacks in girls. The main reasons for eating PS were 'health' followed by 'taste'. The frequencies of general snack eating and those of PS use in mothers were highly associated with the frequencies of eating PS in children. Further, the perceptions on PS in mother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frequencies of PS eating both in boys and in girls, although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somewhat weak.

**Conclusions:** Our study showed that mother's snack eating behavior and perceptions can affect their children's PS use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education toward the mother's eating behavior and nutrition knowledge are important in improving child's eating behavior including reasonable and healthy snack choices.

**Korean J Health Promot 2014;14(3):121-130**

**Keywords:** Snacks, Children, Mother

## 서론

아동기는 만 6세부터 11세까지의 초등학생 시기로, 신체적 성장, 기관 및 조직의 발달과 함께 인지적, 감성적, 사회적

적 성장이 꾸준히 일어난다. 또한 이 시기의 건강 상태는 청소년기의 급성장과 성적 성숙 및 이후 성인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아동기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바람직한 식생활 형성은 생애 전반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sup>1)</sup>

아동기의 간식은 불충분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sup>2)</sup> 아동기는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활동량이 많은 시기이나, 하루 세끼 식사로 섭취할 수 있는 식사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간식의 섭취는 기분을 좋게 해주어 생활에 활력을 주고 정서적

■ Received : June 17, 2014      ■ Accepted : July 30, 2014  
■ Corresponding author : **Jayong Chung, PhD**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977, Fax: +82-2-961-0261  
E-mail: jchung@khu.ac.kr

인 안정 도모 및 지적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sup>3)</sup> 이때 어떤 간식을 선택 하는지도 매우 중요 한데, 학령기 아동의 간식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는 맛, 가격, 영양 요인 등이 알려져 있다.<sup>4)</sup> 또한, 이 시기의 식생활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부모의 식습관에 따라 아동이 섭취하는 식품과 성장발달 양상에 큰 영향을 준다.<sup>5,6)</sup> 한편 아동들이 선호하는 간식은 단순 당 함량이 높 은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sup>7,8)</sup>과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은 패스트푸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sup>9)</sup> 이들 식품은 세 끼 식사를 방해하고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 야 한다. 또한, 식품첨가물의 과잉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학교와 가정에서의 주의가 요구된다.<sup>2)</sup>

최근 올바른 간식 섭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제과 업체에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소위 프리미엄 과자를 판매하기 시작하 였다. 프리미엄 과자는 가공식품에 흔하게 사용되는 합성 착색료, 합성보존료,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을 넣지 않거 나, 유기농·친환경이거나 우리 농산물 재료의 사용, 또는 건강에 좋은 특정 영양소의 첨가 등을 통해 일반 과자와의 차별화를 강조한 제품이다.<sup>10,11)</sup> 또한, 의사나 영양학자 등 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 균형을 조절한 제품들도 있다.<sup>11)</sup> 하지만 이들 소위 프리미엄 과자는 일반 과자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고, 과장된 광고를 포함하거나 과대 포장으로 내용물 부피가 전체 포장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있는 등 소비 자들을 눈속임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2,13)</sup> 또한, 프리미엄 과자와 일반 과자의 영양 성분표에 표시 된 영양성분을 비교한 결과, 프리미엄 과자의 포화지방, 나트륨, 단순 당 함량이 일반 과자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 가 없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브라우니는 100 g당 포화지방 함유량 이 21.5 g으로 일반 초코파이 12 g의 1.8배를 함유하고 있 었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크래커 및 칩류의 나트륨 함량 또한 일반 크래커 및 칩의 함유량보다 비슷하거나 오히 려 높게 나타나 이들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간식 섭취 빈도가 높은 초등학교 5, 6학 년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실태 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아동의 식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머니를 함께 조사하여, 어머니의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 및 간식 섭취 형태가 자녀의 프리미엄 과자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경기 지역 소재 초등학교 2개교에 재학 중인 5학년과 6학년 학생 629명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2011 년 12월에 실시되었다. 학생은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교실 에서 설문조사하였고, 어머니에 대한 조사는 가정통신문 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가 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 회수 후 자료 처리에 포함한 총 연구 대상자는 남 학생 337명, 여학생 292명, 어머니 535명으로 학생의 응답 률은 90.1%, 어머니의 응답률은 76.7%였다.

### 2. 조사 내용 및 방법

#### 1) 대상자의 일반 사항 및 일반 간식 섭취 실태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은 학생의 학년, 성별, 신장, 체 중과 어머니의 나이, 교육 수준, 직업, 가정 내 월수입, 자 녀 수를 조사하였다. 학생의 비만도 평가는 2007년 대한소 아과학회에서 제시한 남아와 여아의 신장별 체중의 성장 도표 백분위의 50백분위수를 표준 체중으로 하여, 비만도 (%)=[(현재 체중-표준 체중)/표준 체중]×100의 공식으로 산출하였고 산출된 비만도가 -10% 미만은 저체중, -10% 이상-10% 미만은 정상, 10% 이상-20% 미만은 과체중, 20% 이상일 때는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학생과 어머니의 일반 간식 섭취 횟수를 조사하였고, 학 생의 하루 간식에 소비하는 돈, 간식을 섭취하는 방법, 간 식을 섭취하는 이유, 간식을 누구와 함께 먹는가를 조사하 였다.

#### 2)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실태

학생과 어머니 모두에게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과 이용 실태 및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프리 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 조사는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 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답하게 하였다. 프리미엄 과자의 구입 빈도는 하루 1회 이상, 주 3-6회, 주 1-2회, 거의 먹지 않음으로 조사하였고,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는 하루 3회 이상, 하루 2회, 하루 1회, 주 5-6회, 주 3-4회, 주 1-2회, 거의 안 먹음(0회)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게 한 후, 하루 섭취 횟수로 환산하여 나타내 었다. 이 밖에, 프리미엄 과자를 구입할 때 중요하게 고려 하는 사항 혹은 프리미엄 과자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 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리미엄 과자를 ‘식품 첨 가물과 같은 인공 원료를 배제하고 유기농·친환경 천연 성 분, 우리 농산물 등 품질 좋은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건강

과 안전성을 강조한 과자'로 정의하고, 설문지에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정의와 함께 실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품들의 사진과 상품명을 함께 제시하였다.

### 3. 자료 처리 및 분석

모든 자료는 명(%) 혹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통계 분석은 SAS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각 항목별 남학생군과 여학생군의 차이 혹은 자녀군과 어머니군의 차이는 Chi-square test, *t*-test 혹은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각 군별 특정 요인에 대한 프리미엄 과자 이용 빈도의 비교는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자녀의 프리미엄 과자 이용 빈도와 어머니의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 사이의 연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 결 과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대상자 중 남학생의 비율은 53.6%, 여학생은 46.4%로 구성되었다. 비만도는 전체 대상자의 41%가 정상 체중이었으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서의 과체중 혹은 비만의 비율이 높았다( $P=0.001$ ). 이들 자녀의 어머니 나이는 '41-45세'가 전체 48.7%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직업 유무는 55% 이상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어머니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2. 초등학교의 프리미엄 과자 이용 실태 및 관련 요인

프리미엄 과자의 구입 빈도를 살펴 본 표 2의 결과, '거의 먹지 않음'이 자녀 71.7%, 어머니 80.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주 1-2회'가 남학생 15.4%, 여학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sup>a</sup>

Variables	Boy (n=337) N (%)	Girl (n=292) N (%)	Total (n=629) N (%)	$\chi^2 (P)^b$
Grade				
5th	192 (57.0)	172 (58.9)	364 (57.9)	0.239 (0.625)
6th	145 (43.0)	120 (41.1)	265 (42.1)	
Obesity				
Underweight	113 (34.7)	132 (46.5)	245 (40.2)	15.872 (0.001)
Normal	137 (42.2)	113 (39.7)	250 (41.1)	
Overweight	28 (8.6)	22 (7.8)	50 (8.2)	
Obese	47 (14.5)	17 (6.0)	64 (10.5)	
Number of siblings				
0	28 (10.4)	24 (9.2)	52 (9.8)	0.398 (0.820)
1	181 (67.0)	174 (66.4)	355 (66.7)	
≥2	61 (22.6)	64 (24.4)	125 (23.5)	
Family income, 10,000 Korean Won/mon				
<100	11 (4.1)	12 (4.6)	23 (4.4)	6.209 (0.184)
100-200	38 (14.2)	42 (16.3)	80 (15.2)	
200-300	54 (20.2)	71 (27.4)	125 (23.7)	
300-400	105 (39.2)	91 (35.1)	196 (37.2)	
≥500	60 (22.3)	43 (16.6)	103 (19.5)	
Mother's age				
30-35	8 (3.0)	13 (5.0)	21 (4.0)	3.274 (0.351)
36-40	85 (31.5)	92 (35.1)	177 (33.3)	
41-45	134 (49.5)	125 (47.7)	259 (48.6)	
≥45	43 (16.0)	32 (12.2)	75 (14.1)	
Mother's education				
≤Middle/high school	164 (60.7)	153 (58.4)	317 (59.6)	0.303 (0.582)
≥College/university	106 (39.3)	109 (41.6)	215 (40.4)	
Mother's employment				
Full-time employed	124 (45.9)	131 (50.0)	255 (47.9)	3.543 (0.170)
Part-time employed	31 (11.5)	39 (14.9)	70 (13.2)	
None	115 (42.6)	92 (35.1)	207 (38.9)	

<sup>a</sup>Some variables have different total numbers due to missing values.

<sup>b</sup>Calculated by chi-square test.

**Table 2.** Characteristics of premium snack purchasing patterns in children and their mothers<sup>a</sup>

Variables	Boy (n=337)	Boy's mother (n=273)	$\chi^2$ (P) <sup>b</sup>	Girl (n=292)	Girl's mother (n=262)	$\chi^2$ (P) <sup>b</sup>	Boy vs. girl
	N (%)	N (%)		N (%)	N (%)		$\chi^2$ (P) <sup>b</sup>
Frequency of purchasing premium snacks							
≥1 time/d	24 (7.1)	5 (1.9)	10.988 (0.012)	12 (4.1)	6 (2.3)	8.136 (0.043)	4.204 (0.240)
3~6 times/wk	19 (5.7)	11 (4.0)		14 (4.8)	6 (2.3)		
1~2 times/wk	52 (15.4)	39 (14.3)		57 (19.5)	36 (13.9)		
Rare	242 (71.8)	217 (79.8)		209 (71.6)	212 (81.5)		
Reasons for purchasing premium snacks (choose two)							
Taste	141 (22.2)	37 (6.8)	118.367 (<0.001)	115 (20.5)	41 (7.8)	66.683 (<0.001)	10.699 (0.058)
Health	201 (31.5)	168 (30.6)		168 (29.9)	150 (28.6)		
Nutrition	91 (14.3)	44 (8.1)		71 (12.7)	44 (8.4)		
Ingredient	91 (14.3)	137 (25.1)		112 (19.9)	146 (27.9)		
Food additives	41 ( 6.5)	110 (20.2)		48 (8.5)	102 (19.5)		
Others	71 (11.2)	50 ( 9.2)		48 (8.5)	41 (7.8)		
Reason for not purchasing premium snacks							
Price	179 (55.4)	126 (46.3)	40.621 (<0.001)	170 (59.2)	136 (51.9)	14.746 (0.005)	1.924 (0.750)
Too much advertisement	42 (13.0)	79 (29.0)		34 (11.9)	53 (20.2)		
Bad taste	56 (17.4)	15 (5.5)		42 (14.6)	22 (8.4)		
Similar nutrient contents	22 (6.8)	23 (8.5)		16 (5.6)	24 (9.2)		
Similar ingredients	24 (7.4)	29 (10.7)		25 (8.7)	27 (10.3)		

<sup>a</sup>Some variables have different total numbers due to missing values.<sup>b</sup>Calculated by chi-square test.**Table 3.** The frequency of eating premium snacks (times/day) and associated factors in boys and girls

Variables	Boy			Girl			Total		
	N	Mean±SD	F (P) <sup>a</sup>	N	Mean±SD	F (P) <sup>a</sup>	N	Mean±SD	F (P) <sup>a</sup>
Frequency of eating general snacks									
≥3 times/d	27	0.40±0.78 <sup>b</sup>	2.87 (0.023)	26	0.20±0.59	1.27 (0.280)	53	0.30±0.69 <sup>b</sup>	2.62 (0.034)
2 times/d	76	0.14±0.43 <sup>c</sup>		69	0.21±0.59		145	0.17±0.51 <sup>c</sup>	
1 time/d	113	0.12±0.30 <sup>c</sup>		106	0.09±0.20		219	0.11±0.26 <sup>c</sup>	
1-3 times/wk	75	0.16±0.35 <sup>c</sup>		59	0.10±0.21		134	0.13±0.30 <sup>c</sup>	
Rare	46	0.12±0.27 <sup>c</sup>		32	0.19±0.55		78	0.15±0.41 <sup>c</sup>	
Money spent on general snacks, Korean Won/d									
<500	97	0.15±0.37	2.29 (0.059)	70	0.11±0.39 <sup>c</sup>	3.40 (0.010)	167	0.14±0.38 <sup>c</sup>	5.21 (<0.001)
500-1000	161	0.14±0.36		151	0.14±0.40 <sup>c</sup>		312	0.14±0.38 <sup>c</sup>	
1100-1500	41	0.12±0.36		43	0.13±0.33 <sup>c</sup>		84	0.13±0.34 <sup>c</sup>	
1600-2000	16	0.10±0.25		19	0.04±0.08 <sup>c</sup>		35	0.07±0.18 <sup>c</sup>	
>2000	22	0.40±0.76		9	0.61±0.96 <sup>b</sup>		31	0.46±0.81 <sup>b</sup>	
Ways of getting general snacks									
Purchased by oneself	125	0.12±0.32	1.03 (0.359)	119	0.15±0.37	1.27 (0.282)	244	0.13±0.34	1.42 (0.242)
Purchased by parents	140	0.17±0.44		107	0.10±0.32		247	0.14±0.40	
Prepared by parents	72	0.20±0.44		66	0.20±0.58		138	0.20±0.51	
Person who eat snacks with									
Alone	135	0.15±0.39	0.13 (0.878)	98	0.17±0.57	0.97 (0.379)	233	0.16±0.47	0.42 (0.657)
Friends	100	0.17±0.39		86	0.16±0.27		186	0.16±0.34	
Family	101	0.16±0.43		108	0.10±0.33		209	0.13±0.38	
Obesity									
Underweight	113	0.18±0.47	1.21 (0.307)	132	0.11±0.23	1.16 (0.320)	245	0.14±0.36	1.02 (0.385)
Normal	137	0.14±0.30		111	0.20±0.60		248	0.16±0.46	
Overweight	28	0.05±0.11		22	0.08±0.22		50	0.06±0.17	
Obese	47	0.14±0.26		17	0.09±0.20		64	0.13±0.25	
Total <sup>d</sup>	337	0.16±0.40		292	0.14±0.40		629	0.15±0.41	-0.80 (0.423)

<sup>a</sup>Calculated by oneway analysis of variance.<sup>b,c</sup>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up>a</sup>Some variables have different total numbers due to missing values.

생 19.5%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프리미엄 과자 구입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남학생 vs. 남학생 어머니  $P=0.012$ , 여학생 vs. 여학생 어머니  $P=0.043$ ).

프리미엄 과자를 구입하는 이유로 자녀는 남학생의 경우 ‘건강(31.6%)’, ‘맛(22.2%)’의 순으로 답하였으며, 여학생 역시 ‘건강(29.9%)’, ‘맛(20.5%)’의 순으로 비슷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건강(29.7%)’과 함께 ‘원재료(26.4%)’를 주요 구입 이유로 들었으며, ‘맛(7.2%)’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자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남학생 vs. 남학생 어머니  $P<0.001$ , 여학생 vs. 여학생 어머니  $P<0.001$ ). 반대로, 프리미엄 과자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와 어머니 모두 ‘가격’의 선택이 가장 높았고(자녀 57.2%, 어머니 49.1%), 그 다음으로 자녀는 ‘맛이 없어서(16.1%)’ 어머니는 ‘과대 광고(24.7%)’를 선택해 남학생과 여학생은 차이가 없었지만 자녀와 어머니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남학생 vs. 남학생 어머니  $P<0.001$ , 여학생 vs. 여학생 어머니  $P=0.005$ ).

표 3에는 학생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나타내었다. 프리미엄 과자의 섭취 빈도를 하루 평균 섭취 횟수로 환산한 결과, 남학생은 하루 평균  $0.16\pm0.4$ 회, 여학생은 하루 평균  $0.14\pm0.4$ 회로 나타났다. 프

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에 관련된 요인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일반 간식의 섭취 빈도가 높은 경우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가 높아지고 여학생의 경우는 간식에 사용되는 비용이 높은 경우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일반 간식 섭취 빈도가 하루 3회 이상인 경우 프리미엄 과자 섭취 횟수가 하루 평균 0.4회로 다른 군에 비해 2.5배-3배 높았다( $P=0.023$ ). 간식에 사용되는 비용은 여학생에서 하루 2,000원 이상 소비하는 경우 2,000원 미만 섭취하는 군에 비해 프리미엄 과자 섭취 횟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10$ ). 한편, 조사 대상자의 비만도, 간식을 같이 먹는지 여부, 간식을 제공받는 경로 등은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초등학교 자녀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와 어머니의 일반 특성 및 간식 섭취와의 관계

어머니의 일반 특성과 간식 섭취 특성이 자녀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표 4의 결과, 어머니의 연령대, 교육 수준, 직업 유무는 자녀의 프리미엄 과자의 섭취 빈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반면 어머니의

**Table 4.** Association between mother's characteristics and the frequency of eating premium snacks (times/day) in boys and girls

Mother's characteristics	Boy (n=273)			Girl (n=262)			Total (n=535)		
	N	Mean $\pm$ SD	F (P) <sup>a</sup>	N	Mean $\pm$ SD	F (P) <sup>a</sup>	N	Mean $\pm$ SD	F (P) <sup>a</sup>
Age									
30-35	8	0.28 $\pm$ 0.70	0.85 (0.470)	13	0.12 $\pm$ 0.22	2.02 (0.111)	21	0.18 $\pm$ 0.46	0.43 (0.733)
36-40	85	0.14 $\pm$ 0.29		91	0.13 $\pm$ 0.37		177	0.13 $\pm$ 0.33	
41-45	134	0.16 $\pm$ 0.40		125	0.12 $\pm$ 0.36		259	0.14 $\pm$ 0.39	
$\geq 45$	43	0.08 $\pm$ 0.22		33	0.32 $\pm$ 0.75		75	0.19 $\pm$ 0.53	
Education									
$\leq$ Middle school	3	0.07 $\pm$ 0.12	0.06 (0.983)	6	0.23 $\pm$ 0.39	2.28 (0.080)	9	0.18 $\pm$ 0.32	1.40 (0.241)
High school	161	0.14 $\pm$ 0.39		147	0.09 $\pm$ 0.33		308	0.12 $\pm$ 0.37	
College/university	104	0.15 $\pm$ 0.31		105	0.23 $\pm$ 0.54		209	0.19 $\pm$ 0.44	
$\geq$ Graduate school	2	0.10 $\pm$ 0.14		4	0.00 $\pm$ 0.00		6	0.03 $\pm$ 0.08	
Employment									
Full-time employed	124	0.14 $\pm$ 0.33	1.14 (0.322)	131	0.14 $\pm$ 0.42	0.16 (0.855)	255	0.14 $\pm$ 0.38	0.23 (0.797)
Part-time employed	31	0.06 $\pm$ 0.12		39	0.18 $\pm$ 0.58		70	0.13 $\pm$ 0.44	
None	115	0.17 $\pm$ 0.42		92	0.15 $\pm$ 0.38		207	0.16 $\pm$ 0.40	
Frequency of eating general snacks									
$\geq 2$ times/d	52	0.17 $\pm$ 0.38	0.70 (0.497)	47	0.24 $\pm$ 0.64 <sup>b</sup>	3.09 (0.047)	99	0.20 $\pm$ 0.52 <sup>b</sup>	3.28 (0.038)
1 time/d	120	0.16 $\pm$ 0.42		115	0.15 $\pm$ 0.40 <sup>bc</sup>		235	0.16 $\pm$ 0.41 <sup>bc</sup>	
$\leq 3$ times/wk	101	0.11 $\pm$ 0.24		100	0.07 $\pm$ 0.16 <sup>c</sup>		201	0.09 $\pm$ 0.21 <sup>c</sup>	
Frequency of purchasing premium snacks									
$\geq 1$ time/d	5	0.44 $\pm$ 0.88	1.31 (0.272)	6	0.78 $\pm$ 1.15 <sup>bc</sup>	6.25 (<0.001)	11	0.63 $\pm$ 1.00 <sup>b</sup>	6.57 (<0.001)
3-6 times/wk	11	0.19 $\pm$ 0.31		6	0.28 $\pm$ 0.31 <sup>c</sup>		17	0.22 $\pm$ 0.31 <sup>c</sup>	
1-2 times/wk	39	0.12 $\pm$ 0.24		36	0.27 $\pm$ 0.69 <sup>c</sup>		75	0.19 $\pm$ 0.51 <sup>c</sup>	
Rare	217	0.14 $\pm$ 0.36		211	0.11 $\pm$ 0.32 <sup>c</sup>		428	0.12 $\pm$ 0.34 <sup>c</sup>	

<sup>a</sup>Calculated by oneway analysis of variance.

<sup>b,c</sup>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up>d</sup>Some variables have different total numbers due to missing values.

**Table 5.** Perceptions on premium snacks in children and their mothers<sup>a</sup>

No.	Item	Boy (n=273)			Girl (n=262)			Boy vs. Girl
		Boy	Boy's mother	<i>t</i> ( <i>P</i> ) <sup>b</sup>	Girl	Girl's mother	<i>t</i> ( <i>P</i> ) <sup>b</sup>	<i>t</i> ( <i>P</i> ) <sup>c</sup>
1	I'm interested in purchasing premium snacks	2.90±1.18	3.14±1.08	-2.551 (0.011)	3.11±1.09	3.11±1.03	0.045 (0.964)	-2.17 (0.030)
2	I think premium snacks are healthier than general snacks	3.47±1.20	3.20±0.99	3.179 (0.002)	3.59±1.01	3.18±0.92	5.395 (<0.001)	-1.21 (0.229)
3	I trust the nutrients and ingredients of the premium snacks	3.24±1.16	2.86±0.93	4.703 (<0.001)	3.29±0.99	2.99±0.83	3.976 (<0.001)	-0.54 (0.590)
4	I think that the price of premium snacks are reasonable	2.49±1.06	2.26±0.84	2.931 (0.004)	2.47±0.81	2.35±0.86	1.619 (0.107)	0.26 (0.792)
5	I think premium snacks are delicious	3.18±1.13	2.80±0.82	5.088 (<0.001)	3.30±0.97	2.89±0.76	5.715 (<0.001)	-1.28 (0.201)
6	I think premium snacks contain less food additives	3.09±0.92	3.00±0.93	1.239 (0.216)	3.13±0.78	3.11±0.81	0.114 (0.910)	-0.46 (0.648)
7	I think premium snacks are safer than general snacks	3.34±1.07	3.00±0.87	4.289 (<0.001)	3.36±0.91	3.08±0.80	4.270 (<0.001)	-0.27 (0.787)
8	I prefer premium snacks to general snacks	2.55±1.20	2.54±0.95	0.130 (0.897)	2.56±1.04	2.66±0.98	-1.216 (0.225)	-0.08 (0.939)
Total <sup>d</sup>		24.26±6.70	22.80±5.83	3.127 (0.002)	24.80±5.58	23.37±5.26	3.437 (0.001)	-1.01 (0.312)

<sup>a</sup>Perception scores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are presented as means±SD.<sup>b</sup>Calculated by paired *t*-test.<sup>c</sup>Calculated by *t*-test.<sup>d</sup>Sum of the perception scores from all eight questions.

일반 간식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여학생의 프리미엄 과자 구입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0.047$ ), 어머니의 일반 간식 섭취 빈도가 하루 2회 이상인 경우 여학생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는 하루 평균 0.24회로, 어머니가 일반 간식을 일주일에 3회 미만으로 섭취하는 군의 하루 평균 0.07회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반면 남학생-어머니 사이에는 이러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497$ ). 또한, 어머니의 프리미엄 과자 구입 빈도가 증가 할수록 여학생의 프리미엄 구입 빈도도 유의하게 증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P<0.001$ ). 어머니가 프리미엄 과자 구입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 여학생 자녀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는 하루 평균 0.11회이었던 반면, 어머니의 프리미엄 과자 구입 빈도가 하루 1회 이상인 경우, 자녀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는 하루 평균 0.78회로 나타났다.

#### 4. 초등학교 자녀와 어머니의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 비교

자녀와 어머니의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을 각 문항당 5점 척도로 조사한 표 5의 결과, 전체 8 문항 중 ‘프리미엄 과자가 일반 과자보다 건강에 더 좋다’ 문항에 대한 점수가 남학생 3.47점, 여학생 3.5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프리미엄 과자의 가격은 적당하다’의 경우 남학생 2.49점, 여학생 2.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8문항에 대한 합계 점수(40점 만점)는 남학생 24.26점, 여학생 24.80점, 남학생 어머니 22.80점, 여학생 어머니 23.37점으로 남학생과 여학

생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던 반면, 남녀 모두 어머니 군에 비해 자녀 군이 프리미엄 과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vs. 남학생 어머니  $P=0.002$ , 여학생 vs. 여학생 어머니  $P=0.001$ ). 이와 비슷하게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프리미엄 과자가 일반 과자보다 건강에 더 좋다’, ‘프리미엄 과자의 영양 성분, 재료에 대해 믿음이 간다’, ‘프리미엄 과자는 맛있다’, ‘프리미엄 과자는 일반 과자에 비해 안전하다’ 등의 다수의 문항에서 남녀 모두 어머니 군에 비해 자녀 군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은 한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프리미엄 과자 구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문항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P=0.030$ ).

#### 5. 어머니의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과 초등학교 자녀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와 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과 자녀의 프리미엄 과자 실제 섭취 빈도와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 6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 총점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자녀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r=0.163$   $P<0.01$ , 여학생  $r=0.137$   $P<0.05$ ).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7문항에서 모두 어머니의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 점수와 자녀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0.05$ ). 이 때 남학생의 경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perceptions on premium snacks in mothers and the frequency of eating premium snacks in children<sup>a</sup>

No.	Perceptions in mothers	Boy (n=273)	Girl (n=262)	Total (n=535)
1	I'm interested in purchasing premium snacks	0.071	0.128 <sup>b</sup>	0.099 <sup>b</sup>
2	I think premium snacks are healthier than general snacks	0.128 <sup>b</sup>	0.137 <sup>b</sup>	0.132 <sup>c</sup>
3	I trust the nutrients and ingredients of the premium snacks	0.188 <sup>c</sup>	0.085	0.139 <sup>c</sup>
4	I think that the price of premium snacks are reasonable	0.114	0.094	0.104 <sup>b</sup>
5	I think premium snacks are delicious	0.093	0.021	0.058
6	I think premium snacks contain less food additives	0.161 <sup>c</sup>	0.087	0.126 <sup>c</sup>
7	I think premium snacks are safer than general snacks	0.167 <sup>c</sup>	0.069	0.120 <sup>c</sup>
8	I prefer premium snacks to general snacks	0.113	0.171 <sup>c</sup>	0.141 <sup>c</sup>
	Total score <sup>d</sup>	0.163 <sup>c</sup>	0.137 <sup>c</sup>	0.150 <sup>c</sup>

<sup>a</sup>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r*) between the perception score for premium snacks in mothers (1: strongly disagree-5: strongly agree) and the frequency of eating premium snacks in children (times/day).

<sup>b</sup>*P*<0.05.

<sup>c</sup>*P*<0.01.

<sup>d</sup>Sum of the perception scores from all eight questions.

<sup>e</sup>*P*<0.001.

우, 어머니의 '프리미엄 과자가 일반 과자보다 건강에 더 좋다', '프리미엄 과자의 영양 성분, 재료에 대해 믿음이 간다', '프리미엄 과자에는 식품 첨가물이 적게 들어 있다', '프리미엄 과자는 일반 과자에 비해 안전하다' 문항에 대한 인식도와 상관성이 있었으며(*P*<0.05),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프리미엄 과자 구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프리미엄 과자가 일반 과자보다 건강에 더 좋다', '프리미엄 과자는 일반 과자에 비해 안전하다' 문항에 대한 점수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 고 찰

최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나, 실제 이에 대한 초등학교생과 이들의 식생활 관리자인 어머니의 인식과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초등학교생과 이들 어머니의 인식과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 제품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프리미엄 과자의 구입 빈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30%가 주 1회 이상 프리미엄 과자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군의 20%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치이다. 프리미엄 과자의 평균 섭취 빈도는 하루 0.15 회로 1주일에 약 1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연구에서<sup>4)</sup> 초등학교생 고학년의 스낵·과자류 섭취 빈도가 주당 약 2.4회임을 고려할 때, 전체 과자류 섭취 빈도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과자를 구입하는 이유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건강'이 가장 많았고, '맛', '원재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흥 지역 초등학교생 고학년에서 일반적인 간식

섭취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맛'을 1순위로 선택한 기존의 결과<sup>14)</sup>와 차별되는 점이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도 간식 선택 기준으로 맛이 77.7%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은 8.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sup>15,16)</sup>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경우도 프리미엄 과자를 구매하는 가장 우선 요인은 '건강'과 '원재료'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생 자녀와 어머니 모두 간식 구매시 단순히 맛에 따라 선택하는 것보다 건강 등의 영양 요인을 고려하려는 최근의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프리미엄 과자를 단순히 값비싼 특정 형태의 과자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본 조사 대상이 되는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일반적인 정의를 설문지에 함께 제시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표준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시가 조사 대상자에게 선입견을 주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프리미엄 과자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격'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 프리미엄 과자가 높은 가격을 핵심적인 특성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7)</sup> 이 밖에 어머니의 경우 전체의 24.7%가 '과대광고'를 프리미엄 과자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 대답하여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생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자녀 본인과 관련된 요인과 어머니 요인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먼저, 초등학교생 본인과 관련된 요인으로 남학생에서 일반 간식의 섭취 빈도가 높은 경우,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생들의 일반 간식 섭취 빈도는 '하루 1회'가 가장 많았으며(34.8%), 하루 2회(23.0%), 주 1-3회(21.3%)의

순이었다. 이와 비슷하게,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10-18 세에서의 간식 섭취 빈도가 ‘하루 1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sup>18)</sup>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하루 1회’ 섭취하는 비율이 44.3%, ‘하루 2회’ 33.1%, ‘하루 3회 이상’도 전체의 11.5%로 나타나 본 조사 대상 학생들의 간식 섭취 빈도가 전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 간식의 종류에 대한 구분은 하지 않았는데, 일반 간식의 종류에 따라 프리미엄 과자와의 관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일반 간식의 섭취 빈도와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의 경우 선호하는 간식의 종류가 남학생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sup>7,19)</sup> 초등학교 고학년의 간식 섭취 실태를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sup>14)</sup> 좋아하는 간식의 종류와 자주 먹는 간식의 종류 모두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과일 및 과일 주스에 대한 선호도와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나 여학생의 경우 간식에서 과자류 이외의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저체중군, 정상군, 과체중군, 비만군을 나누어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를 비교한 결과, 남녀 학생 모두 각 군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간식 섭취 빈도가 비만도와 관련이 없음을 보고한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sup>20,21)</sup> 이는 간식류의 단순 섭취 횟수보다는 섭취하는 간식의 종류, 양 및 전체 열량 섭취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sup>22)</sup> 다양한 요인이 체중의 증가 혹은 감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전체에서 초등학교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요인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일반 간식 섭취 횟수와 프리미엄 과자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특히 여학생-어머니 간의 관련성이 유의했으며, 남학생-어머니 간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의 나이, 교육 수준, 직업은 자녀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일반 특성보다는 어머니 본인의 실제 식습관 또는 식행동이 자녀, 특히 여학생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식습관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양육 환경(부모의 나이, 직업 유무, 교육 수준, 경제 수준, 형제 수 등), 부모의 양육 태도나 영양 지식이 자녀의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sup>23-25)</sup> 부모의 실제 식습관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평소 일반 간식이나 프리미엄 과자의 이용 빈도를 조사함으로써 어머니

의 평소 간식 관련 습관이 자녀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에 유의한 영향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 대상자의 간식 섭취 빈도는 ‘하루 1회’가 43.9%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타난 40대의 ‘하루 1회’ 간식 섭취 비율 ‘46.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sup>18)</sup> 한편, 기존 연구<sup>4,26)</sup>에서 간식의 구매 혹은 섭취 빈도는 가족의 수입이나 부모의 교육 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자녀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가 어머니의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간식의 종류에 따라 어머니의 영향이 달라짐을 제시하는 것으로, 간식 종류별 어머니의 영향 정도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을 보면, ‘프리미엄 과자가 일반 과자보다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한다’와 ‘프리미엄 과자는 일반 과자에 비해 안전하다’의 문항에 대한 점수가 다른 문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프리미엄 과자의 가격은 적당하다’의 문항은 가장 점수가 낮아 프리미엄 과자의 가격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초등학교 자녀와 어머니를 비교한 결과, 대체적으로 어머니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프리미엄 과자의 건강성, 재료, 맛, 안전성 등에 대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성인에 비해 제품 구매시 포장 디자인을 통해 제품에 신뢰도를 갖게 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12)</sup> 즉 프리미엄 과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기보다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막연한 좋은 이미지로 인해 프리미엄 과자를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연령별 식품영양 표시에 대한 인지도를 비교한 보고에 따르면,<sup>27)</sup> 초등학교의 경우 영양 표시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55.1%로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 식품 구매시 영양 표시를 ‘항상 확인 한다’라고 대답한 경우는 14.1%로 매우 낮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초등학교들이 프리미엄 과자를 포함하여 과자류 등의 간식을 선택함에 있어 막연한 이미지나 느낌이 아닌 간식에 대한 올바른 영양 정보와 지식을 이용하여 간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영양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등학교생은 아직 식생활의 독립이 완전하지 않은 시기로 부모나 학교에서의 영양(교)사 등 식생활 관리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기존의 초등학교생의 간식 섭취 및 식생활에 대한 연구<sup>28,29)</sup>는 주로 초등학교 본인에 대해서만 조사하거나, 초등학교생이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나 식생활 지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자녀-어머니간 간식 섭취에 대한 실태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자녀가 인지한 어머니의 식생



활이 아닌 어머니 본인에게 자신의 실제 간식 섭취 행동을 조사한 후, 어머니의 실제 식습관이 자녀의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장점이 있다. 또한 초등학교 간식 섭취에 대한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기존의 대규모 조사 연구에서 간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보다는 간식 전체에 대한 섭취 횟수 등의 단편적인 자료의 수집에 그친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건강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증가한 프리미엄 과자류에 대한 실제 섭취 빈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한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간식 섭취 빈도가 높은 초등학교의 올바른 간식 선택을 위한 지도 및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제한점이 있으며, 추후 다양한 지역과 경제 수준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프리미엄 과자류의 단순 섭취 빈도 이외에 이들 제품으로부터 섭취되는 열량, 당, 나트륨, 포화지방 등의 영양소 섭취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의 식생활에서 이들 간식이 체내 영양 상태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요 약

**연구배경:** 올바른 간식의 선택과 섭취는 아동기의 적절한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소위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초등학교와 이들 어머니의 인식과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 제품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경기 지역 소재 초등학교 2 개교의 5, 6학년 남학생 337명, 여학생 292명과 이들의 어머니 535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일반 사항, 일반 간식 섭취 빈도 및 관련 사항,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 프리미엄 과자의 섭취 빈도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초등학교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는 남학생 1.12회/주, 여학생 0.98회/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일반 간식의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P=0.023$ ), 여학생은 간식에 사용되는 비용이 높을수록( $P=0.010$ ) 프리미엄 과자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프리미엄 과자를 구매하는 이유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건강'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맛', '원재료' 순이었다. 자녀의 프리미엄 과자 섭취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일반 간식 섭취 빈도와 어머니의 프리미엄 과자 구매 빈도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P=0.001$ ), 어머니의 나이, 교육 수준, 직업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초등학교의 프리

미엄 과자 섭취 빈도는 남학생( $r=0.163$ ,  $P<0.01$ )과 여학생( $r=0.137$ ,  $P<0.05$ )에서 모두 어머니의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 총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결론:** 초등학교의 프리미엄 과자 이용에 있어 어머니의 간식 습관 및 프리미엄 과자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자녀의 올바른 간식 선택을 위해 어머니의 식습관 및 영양 정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 간식, 초등학교, 어머니

## REFERENCES

1. Koo JO, Kim JH, Byeon KW, Son JM, Lee JW, Lee JH, et al. Nutri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Chapter 6. Childhood nutrition. Seoul: Power Book; 2011. p. 203-4.
2. Lee KW, Lee HS, Lee MJ. A study on the eating behaviors of self-purchasing snack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 Food Culture 2005;20(5):594-602.
3. Gim YA. Effects of Nutrition Education on Snack Intake of Middle Schooler: with Educated Group and Non-Educated Group [dissertation]. Jeonju: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8. Korean
4. Kang SA, Lee JW, Kim KE, Koo JO, Park DY. A study of the frequency of food purchase for snacking and its related ecological factors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 Community Nutr 2004;9(4):453-63.
5. Kim MJ. The effect of eating habit, life behavior and body image of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parents in child obesity degree. Korean J Physical Growth and Motor Development 2013;21(3):227-35.
6. Hong JH, Oh SG, Chung JY. Relationship of unbalanced diet and eating behavior between school age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Wonju area. Korean J Health Promot 2014;14(1):17-25.
7. Her ES. Interrelations among snack preference, purchasing behaviors and intake in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mpared by the gender and TV watching time. Korean J Community Nutr 2013;18(5):429-41.
8. Kim HY, Won BY, Ryu SH. A study on the intake of foods causing dental caries and the effect of nutrition education for primary students.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2002;18(6):704-15.
9. Lee SS. A study on dietary behavior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Their Preferences for Fast Food. Korean J Community Nutr 2004;9(2):204-13.
10. Lee ES, Kim DJ.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rice acceptance of premium confectionery. J Korean Food Service 2012;8(1):7-29.
11. Kim JS, Shin SN, Park HR, Sung SH, Kim JH, Lee JS. Premium brand of Orion Confectionery. Business Education Journal 2011;22:55-71.
12. Myung KS, Lee ME. A study on the cognitive psychology consumer research and purchase of the premium package design. A Journal of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2009;7(12):81-91.
13. Choi HS. Consumer research press release vol. 32. Consumer Research. 2013. [Accessed June 10, 2014]. <http://www.con->

- summerresearch.co.kr/news/article.html?no=1667.
14. Cho EA, Lee SK, Heo GJ. Snack consumption behaviors and nutrition knowledge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iheung-si. *Korean J Community Nutr* 2010;15(2):169-79.
15. Jo JI, Kim HK. Food habits and eating snack behaviors middle school students in Ulsan area. *Korean J Nutr* 2008;41(8):797-808.
16. Kim YS, Kim BR. Intake of snacks, and perceptions and use of food and nutrition labels by middle school students in Chuncheon area. *J Korean Soc Food Sci Nutr* 2012;41(9):1265-73.
17. Lee ES, Kim DJ.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rice acceptance of premium confectionery. *J Korean Food Service* 2012;8(1):7-29.
1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report. Seoul;2009.
19. Jeong NY, Kim KW. Nutrition knowledge and eating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eoul. *Korean J Community Nutr* 2009;14(1):55-66.
20. Lee JH, Woo JH, Chae HJ, Lee EH, Chyun JH. Study of dietary behaviors and snack intake patterns by weight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Incheon. *Korean J Food Culture* 2010;25(4):366-77.
21. Kim MH, Seo JS, Choi MK, Kim EY. A study on dietary habit and eating snack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ifferent obesity indexes in Chungam area. *Korean J Food & Nutr* 2012;25(1):105-15.
22. Kim GR, Kim MJ. Differences in snacking behavior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in some areas in Seoul and Kyonggido. *Korean J Culinary Res* 2013;19(2):11-27.
23. Lee JS, Choi YS, Bae BS. Association between nutritional knowledge and dietary behaviors of middle school children and their mothers. *Korean J Nutr* 2011;44(2):140-51.
24. Doo MA, Seo JY, Kim YH. Factors to influence consumption pattern of snack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Ilsan area. *J Korean Soc Food Sci Nutr* 2009;38(12):1732-9.
25. Choi MJ, Lee GD, Kim HN. A food selection of preschool children and their mother's perception of dietary management. *J Child Education* 2010;19(1):293-306.
26. Han GS, Cho WK. Study of dietary behaviors and snack intake patterns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Korean J Food Culture* 2011;26(5):490-500.
27. Kim NY, Lee JS. A study on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food-nutrition labeling by in Busan resident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009;38(12):1801-10.
28. Son SH, Kim KN. Relationship between dietary habits & snack consumption an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Cheongju Area. *J Human Ecology* 2011;15(2):59-67.
29. Cheong HS, Choi AK. A study on the dietary status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Ulsan. *J Basic Sciences* 2011;28:5-21.